

국내 최초 환기 휠 컨트롤러 국산화 성공 20여년 컨트롤러 개발·공급의 한길을 걸어오다!!

- ▶ ICT 기반의 스마트 농장 구현 ... 스마트폰을 활용한 데이터 설정 및 변경
- ▶ 최근 양돈장 돈방경보기 개발·공급 ... 각 돈방별 상황 파악 및 컨트롤 가능



▲ 태진테크에서 개발·공급한 다양한 컨트롤러



▲ 한길을 묵묵히 걸어온 태진테크 김승균 대표

현재 산업용이나 가정용 제품 등 여러 분야에서 컨트롤러의 사용은 일반적이다.

양돈산업에서도 축산기자재나 시설 등에서 환과 보온등은 물론 급이, 급수, 경보 등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컨트롤러(controller)의 기계공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제어란 의미로 기계, 전기, 계기화 등 모든 제어기기에 사용하나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동기의 기동, 운전, 정지, 속도 조정하는 제어기를 들 수 있다고 한다.

20여년 동안 이러한 컨트롤러의 개발·공급의 한길을 묵묵히 걸어온 태진테크(대표이사 김승균)는 국내 최초로 국산화 성공을 바탕으로 축산분야에 접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사는 컨트롤러의 전문성을 살린 결과, 현재까지 개발한 제품만 500여개가 넘으며, 특히 20여개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 국내 최초로 환기 웬 콘트롤러 국산화 성공하며 축산업과 인연을 맺다!!

-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축사시설업체에 각종 콘트롤러 공급

태진테크의 김승균 대표는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회사에서 자동제어 콘트롤러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축산 현장에서 수입 콘트롤러 사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듣게 되고 개발을 의뢰받았다고 한다. 1990년대 초 당시에는 수입 콘트롤러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높은 가격은 물론 고장이 나면 A/S도 큰 걱정거리였다고 전했다.

이때 김승균 대표는 콘트롤러를 개발하여 국산화하면 현장에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개발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드디어 1994년 국내 최초로 콘트롤러(환기분야-웬)를 개발하여 국산화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내 최초로 콘트롤러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으로 축산업과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1998년에는 현재의 태진테크를 설립하게 됐다고 한다.

김승균 대표는 전문 개발자로 개발은 즐겁고 자신이 있었지만 판매가 어려웠다고 당시의 상

황을 전했다. 회사 설립 초기에 제품 판매를 위해 축산농가에 직접 카탈로그를 보내는 등 노력을 했지만 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축사시설업체의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주로 제품을 공급하면서 설립된 지 20여년이 넘었지만 현장의 농가에 알려진 것은 8~9년 정도로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현장의 요구와 시장 다각화에 따른 다양한 제품 개발·공급

- 사세 확장에 따라 현재의 사무실(SJ테크 노빌)로 이전 ... 6층 콘트롤러사업부, 7층 ICT사업부, 지하1층 창고 및 웬 조립실 사용
- 전기와 컴퓨터 공학 전공한 우수한 직원들 개발 집중 ...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직원들 장기근속

웬 콘트롤러 제품이 축산 현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축사시설업체와 OEM 방식으로 연계하며 회사는 점차 성장했다고 한다. 이후 현장의 요구와 시장 다각화의 필요성으로 온도경보 콘트롤러, 증폭기 콘트롤러, 사양관리기, 사료관리기, 보온등 콘트롤러, 전화호출기 등에 이어 웬도 추가로 개발하여 공급하게 됐다고 한다.

그 와중에 김승균 대표는 콘트롤러 개발 분야의 전문가로 LG디자인연구소 개발실과 일을 병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LG전자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시제품(샘플)의 구동분야인 콘트롤러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처럼 동사는 LG디자인연구소의 구동분야에 관련된 개발 일을 하면서 축산분야에도 적용할 많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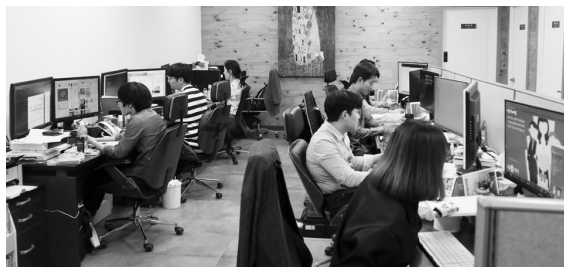
▲ 태진테크 직원들과 함께 한 모습(맨 뒷줄 왼쪽 세 번째가 김승균 대표)

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축산분야에서 컨트롤러 공급과 LG디자인연구소 개발 업무 등에 따라 사세가 확장되며, 2005년에는 현재의 서울시 금천구 소재 가산디지털단지 SJ테크노빌로 사무실 등을 이전하였다. 현재의 사무실은 정부 정책상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업체들을 엄격한 심사로 입주할 수 있게 하여 작업환경이 우수하다고 한다.

김승균 대표는 처음에는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실제 개발도 직접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는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 등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전기와 컴퓨터 공학 등을 전공한 우수한 직원들이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승균 대표의 한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라는 신념으로 가족과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직원들이 장기근속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태진테크에서는 SJ테크노빌의 3개 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6층은 컨트롤러사업부, 7층은 ICT사업부, 지하 1층은 창고 및 헨 조립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 컨트롤러사업부와 ICT사업부 모습

■ ICT 융복합 사업 진출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ICT 기반의 스마트 농장 구현

－ 최근 양돈장 돈방경보기 개발·공급

… 각 돈방별 상황(온도 편차 변화와 정전, 누전 등 전기 차단) 파악 및 컨트롤 가능

태진테크는 2014년부터 ICT 융복합 사업에도 발맞춰 진출하였는데, 특히 사양관리기는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PC나 스마트폰으로 농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농장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고온, 저온, 단수, 누수, 사료정체, 통신장애 시 문자로 통보하는 등 모든 데이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ICT 기반의 스마트 농장 구현을 위한 제품이라고 한다.

스마트 온도경보기는 기존의 온도경보기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ICT 기술을 바탕으로 개선한 제품으로 스마트폰에서 자유로운 데이터 설정이 가능하다. 우선 경보시 문자메시지 발송은 물론 실시간 온도 및 데이터 확인 가능, 축사의 경보상황 발생시 전화호출, 경보내용의 음성 알림, 온도(고온, 저온) 변화 등을 스마트폰에서 설정과 변경이 가능한 제품으로 현장에서 관심이 많다고 한다.

특히 김승균 대표는 앞으로 ICT 기반의 스마트 농장 구현을 위한 사양관리기 등과 같은 축사용 종합컨트롤러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의 수입 종합컨트롤러는 하나의 기판을 기반으로 여러 데이터들 전체가 운영되어 편리하지만, 만약 한 부분이 고장 나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에 동사에서는 환기, 온도 등의 각 데이터 부분을 구분해서 운영하지만,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여 최적의 축사환경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입 종합컨트롤러의 높은 가격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동사에서는 양돈장의 돈방경보기 제품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반응이 뜨



▲ 최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는 온방경보기
(메인 콘트롤러와 통신박스)

겁다고 한다. 온방경보기는 설정한 온도 편차 변화와 정전, 누전 등 전기 차단 시 경보를 스마트폰 문자로 보내준다. 또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으로 각 온방별 온도확인도 물론 설정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는 온사 전체에 대한 관리 위주로 각 온방별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의 온방경보기 보급으로 각 온방에 대한 상황 파악과 컨트롤이 가능해진 것이다. 온방경보기는 온사에 메인 콘트롤러를 설치하고 각 온방별로 통신박스를 설치하면 된다고 한다.

■ 제품의 품질 보증을 위한 직접 생산 시스템 구축 ... 국내에 이어 해외시장 진출 목표


김승균 대표는 “현장에서 보면 가격 위주로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콘트롤러의 문제로 축사 전체에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싼 원자재를 사용하거나 대량 생산으로 싸게 공급할 수 있지만, 이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 A/S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동사에서는 PCB기판을 직접 작업하여 문제 발생 시 A/S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A/S 발생을 최소화하지만 만약 A/S가 발생하면 대부분 입고 후 다음날 농가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했다.



김승균 대표는 “현장에서 보면 가격 위주로 제품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콘트롤러의 문제로 축사 전체에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일본 수출에 이어 올해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국가 진출을 목표하고 있다”며 해외시장 개척의 의지를 밝혔다.

또한 태진 콜시스템 운영으로 농가에서 전화가 오면 사용 제품에 대한 정보는 물론 A/S에 관련된 사항 등 제품에 대한 기록들이 이력관리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승균 대표는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여러 콘트롤러는 국내에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외 진출을 위해 전시회 참가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살펴본 결과, 온도경보기나 사양관리기 등의 제품은 없어 해외 진출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전했다. 또 “2015년부터 중국, 일본 등에 수출을 시작한 이후 올해는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국가 진출을 목표하고 있다”며 해외시장 개척의 의지를 밝혔다. 

【취재 : 안 영 태 기자】